

2013년 12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

무당벌레  
テントウムシ

할머니와 숲 속을 돌아다닐 때  
祖母と森の中を回るとき

나는 무당벌레 몸짓을 자세히 본 적이 있다.  
私はテントウムシの身振りを詳細に見たことがある

나무 밑동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진딧물을 깨끗이  
木の根元から上り、アブラムシをきれいに

먹어치운 다음 꼭대기에 오른 뒤에야 녀석은 다른  
食べてしまった、てっぺんに昇った後、奴はほかの

나무로 날아갔다.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木へ飛んで行った。もう20年が過ぎたが今も

눈에 생생하다. 빨간 바탕에 검은 점박이  
生生と目に浮かぶ。赤い地に黒い斑点

무늬가 새겨진 둥근 날개 딱지를  
模様が刻まれた、丸い羽のふたを

활짝 펴고 자랑스럽게 포르르  
パッと広げて、自慢げにパタパタと

날아가던 모습.  
飛んで行った姿

- 박찬순의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 중에서 -  
- パク・チャンスン〈テントウムシはてっぺんから飛ぶ〉より -

\*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私も初めて知りました。

무당벌레가 꼭대기에서 난다는 것을.  
テントウムシがてっぺんから飛ぶことを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そして私たち自身を、しばらく振り返るようにします

꼭대기에 오르기도 전에 날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てっぺんに登る前に、飛ぼうとするのかしないのか

무당벌레 하나도 어느 경지에 오른 다음에  
テントウムシ一つも、ある境地に登った後で

포르르 날개를 펴는데, 행여라도 우리는  
パタパタと羽を広げるのに、もしかしたら我々は

너무 일찍, 너무도 성급하게  
とても速く、あまりにも早急に

날개를 펴는 것은 아닌지...  
羽を広げようとしてないか...

무당벌레

[명사] [곤충] テントウムシ(天道虫).

몸짓

[명사] 身振り; ジェスチャー.

밑동

[명사]

根元.

長い物の一番下の部分; 底.

立ち木の地面に近い部分; 根方; 根もと.

진딧물

[명사] [곤충] アブラムシ(油虫); アリマキ(蟻卷)(딴 이름).

녀석

[의존명사]

男に対して卑しめて呼ぶ語: 奴[속어]; 野郎[...]

男の子をかわいがっていう語: こいつ; 坊や.

바탕

[명사]

質.

物の材料や品質.

根本を成す部分; 基礎.

점박이 (點—)

[명사]

(顔または体に)斑点のある人, または獸. =...

いつも人に指さされる人.

무늬

[명사]

(어룡진) 斑紋; まだら.

(일반적) 模様; 文様[紋様]; 図様(\*한문투의 말씨); 柄(...)

둥글다

[형용사]

丸[円]い.

(모양이) 円形[球形]である.

[자동사] 丸[円]くなる.

날개

[명사]

翼.

[생물] (鳥の)羽; 羽交い; 羽[아어(雅語)].

(비행기 등의) 翼; 羽; 機翼; ウイング.

ふた [蓋] 발음 재생 매우중요

(소라 따위의) 딱지.

포르르

[부사]

(끓다) 水が煮え立つさま; または, その音: ぐらぐら.

(타다) 火の勢いよく燃えるさま: めらめら.

(떨다) 葉など小さい物が軽くふるえるさま: ぶるぶる.

행여 (幸—)

[부사] 幸いに; もしや; もしかしたら; ひょっとしたら; 仮初にも.

2013년 12월 24일 보낸 편지입니다.

'참 좋은 당신'  
'とてもいいあなた'

우리 주변에는  
我々の周りには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의 불행에  
心があつたかくて、他人の不幸に

가슴 아파하는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心痛める善良な人がとても多いです

그리고 우리는 다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そして、我々は、皆足りない存在だから

서로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お互いもたれて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事実も

자주 느끼게 됩니다. 외로운 타인에게  
よく感じるようになります。つらい他人に

내 어깨를 내주는 일, 추운 등을  
私の肩を譲ること、冷たい背中を

서로 기대는 일, 그게 우리가  
お互いもたれること、それが我々が

잘 살아가는 일이겠지요.  
よく生きることでしょう

- 송정림의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중에서 -  
- ソン・ジョンリムの〈とても良いあなたに会いました〉より -

\* 아파본 사람만이  
\* 病氣になった人だけ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病氣の人の気持ちをわかります

외롭고 춥고 홀로 떨어진 사람만이  
寂しくて、寒い、一人で震える人だけが

서로 기대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가  
お互いもたれながら生きることができる人ひとつ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どれだけありがたく、大切なのか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

우리는 누구나 늘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我々は誰でも、ずっと不足した存在だから

그 부족함을 함께 나누고 채울 수 있는  
その不足感をともに分けて満たすことができる

'옆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隣人'が必ず必要です

'참 좋은 당신'입니다.  
'とても素晴らしいあなた'です

착하다

[형용사] 善良だ; おとなしい; よい. (=선하다)

모자라다

[자동사] [형용사]

足りない.

(부족함) 不足する; 乏しい.

(수량에 못 미침) (数量·数値に) 及ばない; 不足(...

내주다

[타동사]

渡す; 渡してやる.

(中にあるものを) 取り出して与える.

明け渡す; 譲る.

춥다

[형용사] 寒い.

등

[명사] 背; 背中.

외롭다

[형용사] 頼る所[身寄り]がなくて心細い; 寂しい; わ...

춥다

[형용사] 寒い.

홀로

[부사] 一人で; 一人きり(で); 一人ぼっちで; 孤立して.

떨다

[자동사] [타동사]

(흔들리다, 흔들다) 震える; 震わす; 小刻みに揺れる[揺...

(두려워) おののく; おびえる.

(몸을) 寒さ·恐ろしさ·怒りなどで, からだなどを震わせ...

2013년 12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星が輝く夜

몸은 물먹은 솜처럼  
体は湿った綿のように

피로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疲れていたが、それは問題にならなかった

별들이 찬란한 창공 아래 세상에 감각을 열고  
星たちが輝く蒼天の下で、世の中に感覚を開いて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드물다.  
静かに座っているように、気分良いことはまれだ

달이 동쪽 하늘을 가로질러 빛나고 있었다.  
月が東側の空を横切って光っていた

더 많은 별들이 깜박이기 시작하면서  
さらに多い星たちが輝きはじめて

다이아몬드가 깔린 검은 벨벳처럼  
ダイヤモンドが敷かれた黒いベルベットのよう

하늘이 반짝였다.  
空が輝いていた

- 다이앤 애커먼의 《사랑의 백가지 이름》 중에서 -  
- ダイアン・アッカーマン〈愛の100の名前〉より -

\* 시인들은 말합니다.  
\* 詩人たちは言います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다고.  
われわれ皆は星から来た

유대 땅 '동방박사들'은 말합니다.  
ユダヤの地'東方博士'は言います

별빛따라 아기예수 나신 곳을 찾아왔노라고.  
星明りによって、赤ちゃんのイエスが生まれたところを探したのだと

별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星は我々の故郷です。我々を導く光です

옹달샘에서도 별이 쏟아지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  
小さな泉にも星が降り注ぐ夜。空を眺めれば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차오릅니다.  
気分がよくなって心が踊ります

다이아몬드가 가득합니다.  
ダイヤモンドが満たされます。

물먹다

[자동사]

植物などが養分として水を吸い込む.  
(紙・布などに)水が染みる; 水にぬれる.

[속어] 一杯食う.

솜

[명사] 綿; 木綿; 木綿[生綿](키わた).

찬란하다 (燦爛—)

[형용사] 燦爛としている; きらびやかだ; 輝かしい.

창공 (蒼空)

[명사] 蒼空; 青空; 蒼天; 碧空; 青天井(あおて...)

드물다

[형용사]

まれだ.

(찾지 않다) (時間的に) 繁くない; 少ない; 頻繁...

(흔하지 않다) 珍しい; めったにない.

가로지르다

[타동사]

(横に) 渡す.

横切る; 貫く; 突き切る.

깜박이다

[자동사] (明かりなどが) ちらつく; 瞬く.

[타동사] (目を) まじろぐ[またたく]. [큰말] 끔뻑이다. [센말] 깜빡이다.

깔리다

[자동사]

[ '깔다' の受け身] 組み敷かれる; 押さえられる; 下敷き...

敷かれ(たようにな)る.

검다2

[형용사]

(빛이) (色が) 黒い; か黒い. [작은말] 감다. [센말] 검다.

(마음이) 腹黒い.

벨벳 (velvet)

[명사] 벨ベット; 비로드. (=비로드·우단(羽緞))

유대 (←Judea)

[명사] 유다야. (=유태(猶太))

동방 (東方)

[명사] 東方. (=동쪽)

ほしあかり [星明(か)り] 발음 재생

별빛.

아기

[명사]

幼子の愛称: 赤ちゃん; 赤ん坊; 坊や.

若い嫁や娘の愛称.

他人を幼いに見なして呼ぶ語.

예수 (←Jesus)

[명사] [기독교] イエス; キリスト.

나신 (裸身)

[명사] 裸身; はだかみ; 裸体(\*한문투의 말씨); 裸. (=나체·알몸)...

쏟아지다

[자동사]

一度にどっとこぼれ出る.

降りしきる; 降り注ぐ; あふれ出る; ほとばしる.

あふれる.

차오르기

[명사] (器械体操で) 蹴上がり.

2013년 12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영원히!'  
'我々は永遠に'

그래서인지 우리는  
それでなのか、我々は

'영원히' 라는 말을 유난히도 좋아한다.  
'永遠に' という言葉をとリわけ好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영원히 사랑한다  
愛する人に会った時も、永遠に愛して

하고, 우정을 나눌 때도 영원히 변치 말자 한다.  
友情を分かち合うときも永遠に変わらないという

행복한 순간에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幸せな瞬間には、その瞬間が永遠であることを願う

인간의 삶이 유한함을 알면서도 원래 있었던  
人間の人生が有限だとわかりながらも、本来あった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삶을  
永遠な時間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人生を

그리워하는 것이다.  
懐かしむのだ

- 한홍의 《시간의 마스터》 중에서 -  
- ハン・ホン〈時間のミスター〉より -

\*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 人生が有限だから

영원을 더욱 꿈꾸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永遠をさらに夢見ながら生きるのかもしれない

한 번 정을 주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一度情を与えれば、死ぬまで、いや死んでも

영원하기를 꿈꿉니다. 돌처럼, 박제된 동물처럼  
永遠さを夢見ます。石のように、剥製された動物のように

굳어진 채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固まったままの永遠ではなく、木のように

계속 자라면서 꽃처럼 철마다 새롭게  
続けて育ちながら、花のように折々新しく

피어나면서 영원하기를 꿈꿉니다.  
花さかせながら永遠であることを夢見ます

'우리 영원히!'  
'我々は永遠に!'

20131226.txt

유난히

[부사] とりわけ; 並外れて; 際立って; ひときわ; ことのほか; やけ...

변하다 (變—)

[자동사]

変わる.

(상태가) 異なる状態になる; 変ずる; 変化する.

(세월이) (年月が) 改まる.

ゆうげん [有限] 발음 재생

유한. (↔無限)

돌처럼, 박제된 동물처럼

四季折折の風物 발음 재생 (표제어: 사계)

사계 철마다의 풍물



2013년 12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라”  
“下を見下ろすな”

오늘의 작업줄이자  
今日の作業を減らそうと

내 목숨이 걸린 18밀리미터짜리 로프.  
私の命がかかった18ミリのロープ

안전판에 앉고 나면 나는 결코 아래를  
安全弁に座れば、私は決して下を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건 주인아저씨한테  
見下ろさない。それは、主人のおじさんに

배운 것이다. “초보 때는 절대 아래를  
学んだことだ。” 初心者の際は絶対下を

내려다보지 말거래이. 눈은 항상 빌딩  
見てはいけない。目はいつもビルの

꼭대기나 하늘을 바라보라고. 지나가는  
てっぺんや、空を眺めろ。通り過ぎる

구름이나 새를 보라. 새 날개를  
雲や鳥を見ろ。鳥の翼を

띄워 주는 바람도 보고.”  
浮かせてあげる風もみろ”

- 박찬순의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중에서 -  
- パク・チャンウンの〈テントウムシはてっぺんから飛ぶ〉より -

\*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사람, 특히  
\* 昆虫、ビルの窓を磨く人、特に

초보자는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初心者は絶対下を見下ろしてはいけないといえます

고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겁에 질려  
高空から下を眺める瞬間、おびえて

온몸이 화석처럼 굳어져버리기 때문입니다.  
全身が化石のように固くなってしまいます

흘러간 과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流れた過去の時間と同じです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지 말고,  
過ぎ去った痛みと傷を振り返らず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의  
空を眺めてください。希望の

새를 바라보세요.  
鳥を眺めてください

내려다보다

[타동사]

(上から下を)見下ろす.

(人を)見下す; 見下げる. (⇔올려다보다)

작업 (作業)

[명사] 作業.

줄이다

[타동사] [ '줄다' の使役] 減らす; 少なく[小さく]する; 縮め...

안전판 (安全瓣)

[명사] 安全弁.

초보 (初歩)

[명사] 初歩; 入門; 手始め; 手解き.

띄우다<sup>1</sup>

[타동사]

[ '뜨다' の使役]

浮かべる.

(물·공중에) (水や空中に)浮かばせる; 浮かす.

고공 (高空)

[명사] 高空. (⇔저공(低空))

겁(에) 질리다

[성구·관용구] おびえる; おくびょう風に吹かれる.

20131228.txt

2013년 12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ヘ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새해에는...  
新年には...

새해에는  
新年には

새로이 눈뜨게 하소서.  
新たに目覚めますように

낡고 오랜 집에 그대로 살더라도  
古く、長く家にそのまま住んでいるが

다시 살게 하시고, 새 꿈을 이루게 하소서.  
もう一度住ませ、新しい夢を叶えるように

잠을 터는 산 발치의 한 그루 소나무, 벗을 것  
眠りを払って、山のふもとの一本松、

다 벗은 미루나무 빈 가지에도 새로운 피가  
裸のポプラの木、なにもない枝にも新しい血が

돌게 하시고 얼음장 밑 물고기들, 빈 들판  
めぐるようにして、氷の下の魚たち、何もない原っぱ

위를 비상하는 새들의 기다리는 눈빛에도  
の上を飛翔する鳥たちの待つ目にも

아름답고 새로운 꿈이 반짝이게 하소서.  
美しく、新しい夢が輝きますように

- 이태수의 시 <다시 새해 아침에>에서 -  
- イ・テスの詩<もう一度新年の朝に>より -

\* 새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 新年が何日も残っていません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太陽の下、新しいことがないが

'새해' 라는 말에서 다시 희망을 찾아봅니다.  
'新年' という言葉にもう一度希望を探します

아침편지를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에는  
朝の手紙を読む方皆さん、新年には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いいことだけ満たすように祈り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新年、福をたくさん受けてください!

낯다

[형용사]

古い.

(오래되다) 古くさい; 古びる; 古ぼける.

(구식) 旧式だ; 時代後れだ; 古くさい.

털다

[타동사]

はたく.

(붙은 것을) (ついたほこ리などを) 払う; 払いのける; 振るい払(は...

(재물을) (持っている財物を) 全部出す; 使い果た...

발치

[명사]

寝るときの足下の方. (⇨머리맡)

場所や建物の下端や端.

足のある方.

벗다2

[타동사]

(몸에 걸친 것을) (身に着けたものを) 脱ぐ.

(의무·책임 등) (責任などを) 免れる; (허물·의심 등을) 晴...

(짐을) (担った) 荷を下ろす.

미루나무

[명사][식물] セイヨウ(西洋)ハコヤナギ; ポプラ. (=포플라)

돌다

[자동사]

回る.

(회전하다) (物が) 回る; 回転する.

[타동사]

回る.

(周囲を) 巡る.

들판2

[명사] 野原; 野っ原[속어]; 野辺; 原っぱ; 野面[아어(...